

제주지역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특성 및 교육 만족도 분석

Analysis of Trainee's Characteristics & Satisfaction on Education for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in Jeju

고상환* · 김동현**

Sang Hwan Ko · Dong Hyu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lication for the return farm and rural training program through the analyzed trainees' satisfa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polled 89 trainees who presented the Return farm and rural training program by Jeju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rainees' general characteristics appeared very various at an age structure, stage and type of return farm and rural. Secon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for the training program was normal but i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rainees' general characteristics, stage and type of Return farm and rural. This result was due to the unilateral training program. Consequently, it required a lot of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through reflecting the trainees' properties in the training plan.

주요어(key words): 귀농귀촌(Return to the Farm and Rural),
교육만족도(Satisfaction of Education)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주저자. e-mail: kshcheju@jeju.go.kr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교신저자. e-mail: kdh0401@jeju.go.kr

1. 서론

농촌지역의 농업노동력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현상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동기도 매우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경제 위축으로 도시사회에서 퇴출되거나 미 취업되는 등 비자발적 요인에 의한 것과 베이비 부머 시대의 은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양화 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다양한 귀농지원 시책사업¹⁾과 지방정부의 귀농지원을 위한 조례제정²⁾ 등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구의 증가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인구의 증가는 농촌사회갈등 조장, 경영규모화의 촉진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농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현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농촌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사회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때 기대할 수 있다. 농촌이주를 결심하였지만 탐색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이주는 이루어졌지만 정착에 실패하여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시간과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한 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사회 또는 농업 현

-
- 1)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인 단체, 창업멘토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농어촌주택개량지원, 농어촌 뉴타운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이 있음.
 - 2) 2011년 11월 현재 83개 지자체에서 귀농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귀농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보조용자, 빈집수리 등 시설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는 냉철한 검토없이 순간적인 판단이나 단순한 동경만으로 농촌이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위주의 귀농·귀촌지원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귀농·귀촌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지원형태의 정책도 중요하다할 수 있지만, 이에 우선하여 농촌이주 희망자들이 보다 냉철한 판단기준아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교육사업 내실화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교육주체³⁾들에 의해 여러 형태의 귀농·귀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시행주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특성이나 수요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한 제주도농업기술원 귀농·귀촌교육 참여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첫째,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들의 귀농·귀촌 동기와 단계, 유형 등을 조사함으로써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들의 주요 속성별 교육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인지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귀농·귀촌 희망인들을 대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후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및 교육사업 등에 매우 유효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3)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된 교육훈련은 농촌진흥청, 각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귀농운동본부, 대학(한국농업대학, 천안연암대학) 등이 있음.

2. 선행연구의 고찰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과 관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IMF로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도시민의 농촌이주가 급증한 1997년 이후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된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섭(2009)은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준비와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귀농·귀촌의 문제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농촌지도기관을 통한 상담과 교육 등 연성적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성수 등(2004)은 귀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 특성 및 애로사항,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 등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해서는 귀농 전 귀농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귀농단계에서는 적절한 정보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며, 귀농 이후에도 소득과 자녀교육여건 등에서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서규선·변재면(2000)은 U턴 귀농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귀농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귀농단계별로 필요로하는 정보와 지식, 기술사항 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정철영(2000)은 귀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귀농결과와 관련된 변인, 귀농유형, 교육기관의 교육훈련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육대상자의 선발과 교육내용 선정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훈련은 귀농희망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주체들 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해야함과 함께, 자금지원과도 유기적

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용(1998)은 전라남도 지역으로 귀농한 농가들 중 귀농교육 수강자 및 미수강자 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에 대한 애로사항과 농촌생활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과 자신의 의견을 종합한 영농교육 기회의 대폭적인 확대 등 10개의 정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과 관련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귀농 귀촌 실태 및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⁴⁾, 도시민의 귀농의사 분석⁵⁾, 귀농·귀촌 결과 만족도 파악⁶⁾이 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
- 4) 대표적으로 강대구(2006, 2007, 2010)를 들 수 있는데 귀농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의 유형 및 동기별 정착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귀농실태 및 귀농자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역할분담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5) 윤순덕, 강경화, 박공주, & 이정화(2005)는 전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농업농촌에 대한 거주경험이 있고,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긍정적일수록 은퇴 후 농촌으로의 이주 확률이 높음을 밝혔다.
- 6) 이상호(2008)는 경북지역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귀농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사전 정보 및 기대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귀농이전에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주민과의 관계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민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한모(2002)는 귀농인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인의 경험이나 귀농준비정도가 귀농생활과 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귀농인의 특성과 상황에 기초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11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한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으로써 수집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우선 교육 참여자들의 특성과악을 위한 것으로 귀농·귀촌 동기, 준비기간과 준비정도, 정보습득 경로, 활동 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귀농·귀촌 교육과 관련해서는 참여 동기와 만족도, 프로그램별 교과운영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개선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자들의 연령, 성별, 학력, 귀농 전 거주지역과 직업 등 인적사항을 조사하였다.

3.2. 자료 집계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교육 참여자는 총 102명이었으나, 이중 응답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통계처리를 위한 정보가 누락된 13명은 최종 집계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89명의 응답내용만을 이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WIN 14.0 PC Statistic Program을 이용하였다.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귀농 동기와 단계, 유형 등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들의 주요 속성별 교육 만족도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차를 분석하고, T검정 또는 F검정을 통하여 비교 집단 간 유의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3.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8.7%로 많았지만, 여성도 21.3%를 점유하였다. 평균 연령은 49.0세이었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32.6%), 30대(18.0%), 60대(14.6%) 순이었다. 또한 교육참여자의 86.5%가 기혼이었고, 귀농·귀촌에 따른 동반 가족 수는 2인의 경우가 43.8%로 가장 많았고, 1인(19.1%), 3인(18.0%), 4인(14.6%)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상인 79.7%를 차지해 고학력자가 많았고 귀농 전 직업으로는 경영/전문직에 종사하였던 비율이 27.0%로 가장 많았다. 귀농·귀촌 전 거주 지역은 제주 이외의 지역이 77.5%로 “제주”의 22.5% 보다 많았다. 제주지역 외 거주 지역 분포는 “서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명, 부산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지역과 귀농·귀촌 전 거주지역을 참고로 귀농·귀촌유형⁷⁾을 집계한 결과, I턴형의 귀촌유형이 87.7%의 비율을 보여 U턴형 12.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7) 귀농귀촌의 유형은 귀농경로에 따라 크게 농촌출신으로 도시에 거주하다가 다시 출신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U턴형, 농촌출신이지만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이 아닌 타 지역 농촌으로 이주하는 J턴형, 도시출신으로 농촌생활의 경험없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I턴형으로 구분하고 있음이 일반적이거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한계로 U턴과 I턴형으로 유형을 단순화하였음

8) 농촌진흥청(1998), 강대구(2006), 박공주, 김양희, & 박정윤(2007)이 조사결과 U턴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는 상반되며, 정철영(2001)의 조사결과와는 비슷한 추이를 보임.

〈표 1〉 조사자 일반현황

(N=89)

속 성		빈도	%	구 분		빈도	%		
성별	남	70	78.7	결혼 여부	기혼	77	86.5		
	여자	19	21.3		미혼	12	13.5		
연령	30대	16	18.0	귀농전직업	경영/전문직	24	27.0		
	40대	29	32.6		사무/판매/서비스	20	22.5		
	50대	31	34.8		자영업	20	22.5		
	60대	13	14.6		전업주부	9	10.1		
귀농 가족수	1인	17	19.1		생산기술직	5	5.6		
	2인	39	43.8		공무원	4	4.5		
	3인	16	18.0		기타	4	4.5		
	4인	13	14.6		은퇴/무직	2	2.2		
	5인	4	4.5		학생	1	1.1		
최종 학력	중졸	3	3.4		귀농전거주 지	제주	20	22.5	
	고졸	15	16.9	제주외		소계	69	77.5	
	대졸	65	73.0			서울	34	38.2	
	대학원졸	6	6.7			경기	15	16.9	
귀농귀 촌유형	I 턴 형	타도시	58			65.2	부산	10	11.2
		지역내	20			22.5	충북	2	2.2
		소계	78			87.7	기타	8	8.8
	U턴형	11	12.4						

4. 연구결과

4.1. 제주지역 귀농·귀촌의 특성

4.1.1. 귀농·귀촌 동기 및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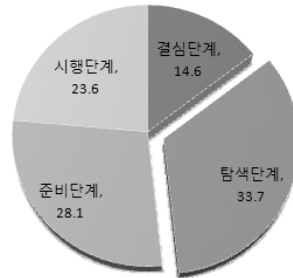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가 32.6%로 가장 많았고, “퇴직 후 여생을 위하여”(23.6%),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와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가 각각(10.1%),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하여”(7.9%), 농촌생활이 좋아서(5.6%), 도시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와 미래에 농업전망을 보고(각각 4.4%)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한편 귀농·귀촌의 진행 단계⁹⁾를 결심→탐색→준비→시행 단계로 구분할 때, 본 조사에서는 “탐색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단계”(28.1%), “시행단계”(23.6%), “귀농결심 단계”(14.6%)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그림 1>).

9) 귀농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고, 아직까지 검증된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표 2〉 귀농동기별 분포

(N=89)

귀농동기	빈도	%
①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29	32.6
②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	21	23.6
③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9	10.1
④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9	10.1
⑤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서	7	7.9
⑥ 농촌생활이 좋아서	5	5.6
⑦ 도시생활에 회의감을 느껴서	4	4.5
⑧ 미래 농업전망을 보고	4	4.5
⑨ 기타	1	1.1



〈그림 1〉 귀농귀촌 단계별 분포

4.1.2. 기대소득 수준과 경제활동 계획

귀농·귀촌 후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들 중 상당부분이 경제적 이유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연구결과¹⁰⁾에서 나타난 것처럼 귀농·귀촌 후 경제활동 결과로서 소득수준은 귀농·귀촌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기대소득을 얼마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경제활동으로서 농업과 농외활동 등에 대한 경제활동 계획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 응답자들이 연평균 기대소득 수준은 4,074만원으로 집계되었다¹¹⁾. 그러나 개인별로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분포를 보여,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소득 수준의 차이가 응답자들의 속성에 따라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0) 김성수, 정지용 등(2004)의 연구에서 귀농인들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11) 2010년 제주지역 농가의 호당 평균 소득 4,109만원과 비슷한 수준임.

우선 성별과 학력에 따라서는 차가 없었지만, 연령과 동반 가족 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응답자의 경우가 연간 4,431만원, 4,271만원이라고 답하여 기대소득 수준이 가장 높았고 30대(3,844만원)와 60대(3,092만원) 순이었다. 동반 가족 수 크기별로는 5인의 경우가 6,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가족 수가 적을수록 기대소득 수준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3>).

<표 3> 속성별 기대소득 수준

속성별		N	소득수준		
			M	SD	S J
연령대별	30대	16	3,844	926	ab
	40대	29	4,431	1,287	b
	50대	31	4,271	1,245	b
	60대	13	3,092	1,358	a
	F(p)		4.049(0.010)		
가족수	1인	17	3,329	1,046	a
	2인	39	3,987	1,325	a
	3인	16	4,156	1,028	a
	4인	13	4,615	982	ab
	5인	4	6,000	1,414	b
	F(p)		5.082(0.001)		
성별	남	70	4,101	1,249	
	여자	19	3,974	1,457	
	T(p)		0.381(0.704)		
학력	고졸이하	18	3,872	1,491	
	대졸이상	71	4,125	1,239	
	T(p)		0.742(0.460)		

J : 5% 유의수준에서 b>ab>a

소득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으로서 응답자 대부분이 농업생산 활동과 함께 농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농업생산 활동과 관련한 품목에 대해 “노지작물”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비율이 40.4%로 가장 많았고, “복합영농”(25.8%), “관광농업”(13.5%), “시설작물”(10.1%)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노지작물에 대한 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작물이 경우 초기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 부담에 따른 것이며, 관광농업에 대한 선택도 제주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재배 또는 관리가 쉬울 것 같아서”가 27.0%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높을 것 같아서”(17%), “지인의 권고로”(13.5%), “여가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10.1%) 순이었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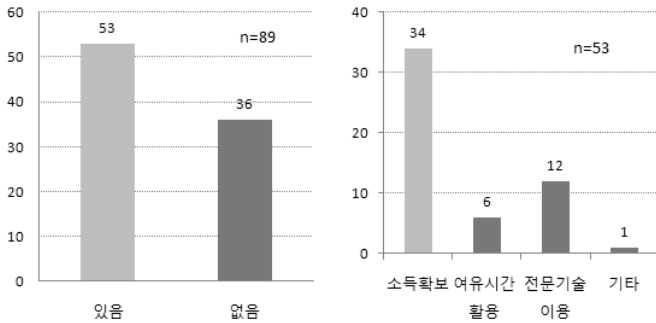
〈표 4〉 영농과 관련 선택 품목 분포

(N=89)

품목	빈도	%	품목선택이유	빈도	%
① 노지작물	36	40.4	① 재배관리가 쉬울 것 같아	24	27.0
② 복합영농	23	25.8	② 소득이 높을 것 같아	17	19.1
③ 관광농업	12	13.5	③ 지인의 권고로	12	13.5
④ 시설작물	9	10.1	④ 여가시간이 많을 것 같아	9	10.1
⑤ 농산물가공	3	3.4	⑤ 지도기관의 추천	2	2.2
⑥ 기타	1	1.1	⑥ 기타	20	22.5
⑦ 미정	5	5.6	⑦ 무응답	5	5.6

한편 귀농·귀촌시 농외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40.4%가 “없다”라고 답한 반면, 59.6%는 “있다”라고 응답하여 농외활동 계획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로는 “소득확보”가 64.2%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 이용(22.6%), 여유시간 활용(11.3%) 순이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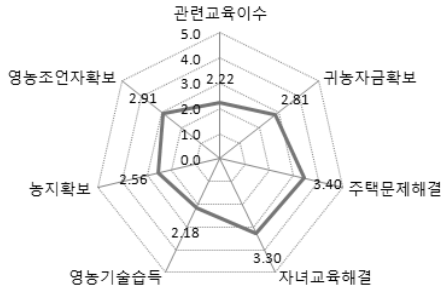


〈그림 2〉 농외활동 여부 및 이유

4.1.3. 귀농·귀촌 준비 정도에 대한 속성별 인식수준의 차이

귀농·귀촌은 삶의 공간을 농촌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은 농촌이라는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 이주와 함께 당면하게 될 귀농자금 및 영농조언자 확보 등 7개 분야의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5점 척도로 살펴보고, 속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각 분야별 준비정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적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주택과 자녀교육만이 평균 이상 준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농 자금 확보, 조언자 확보, 농지 확보 등은 준비 정도가 낮고, 특히 영농기술에 대한 준비정도는 가장 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3〉).



〈그림 3〉 분야별 준비정도

위에서 언급한 귀농·귀촌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정도가 응답자들의 속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귀농귀촌 준비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학력과 동반 가족 수를 제외한 연령과 귀농유형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연령별 귀농·귀촌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교육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가 자녀교육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30대는 2.43점으로 나타나 준비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표 5> 연령별 각 분야별 준비정도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

분야별	연령별	N	분야별 준비정도			
			M	SD	F(p)	S J
관련교육 이수	30대	16	1.88	1.258	1.042 (0.378)	
	40대	29	2.24	1.300		
	50대	31	2.16	1.416		
	60대	13	2.77	1.589		
귀농자금 확보	30대	16	2.69	1.078	0.298 (0.827)	
	40대	29	2.72	0.922		
	50대	31	2.87	1.088		
	60대	13	3.00	1.354		
주택문제 해결	30대	16	3.81	1.223	0.678 (0.568)	
	40대	29	3.14	1.575		
	50대	31	3.45	1.609		
	60대	13	3.38	1.609		
자녀교육 해결	30대	14	2.43	1.222	5.675 (0.001)	a
	40대	28	2.82	1.541		ab
	50대	31	4.10	1.350		b
	60대	13	3.38	1.805		ab
영농기술 습득	30대	16	2.13	0.957	1.706 (0.172)	
	40대	29	1.86	0.875		
	50대	30	2.33	1.155		
	60대	13	2.62	1.502		
농지확보	30대	16	2.25	1.571	0.812 (0.491)	
	40대	29	2.45	1.429		
	50대	31	2.61	1.453		
	60대	13	3.08	1.656		
영농조건 자확보	30대	16	2.94	1.569	2.363 (0.077)	
	40대	29	2.38	1.293		
	50대	31	3.35	1.355		
	60대	13	3.00	1.683		

J: 5% 유의수준에서 b>ab>a

귀농·귀촌 유형별로는 농지확보와 영농조언자 확보 부분에서만 각각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U턴 형이 I턴 형과 비교하여 농지확보와 영농조언자 확보부분에서 준비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이는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에서의 인적 연고관계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이 부분에서 U턴 형이 I턴 형보다 준비과정에서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추정 가능케 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표 6> 귀농·귀촌 유형별 준비정도에 따른 인식수준의 차이

구분	유형	N	준비정도 인식수준		
			M	SD	T(p)
관련교육이수	U턴형	11	1.91	1.221	-0.898 (0.3842)
	I턴형	78	2.27	1.402	
귀농자금확보	U턴형	11	3.00	0.894	0.735 (0.4740)
	I턴형	78	2.78	1.089	
주택문제해결	U턴형	11	4.00	1.183	1.388 (0.1687)
	I턴형	78	3.32	1.558	
자녀교육해결	U턴형	10	3.80	1.033	1.055 (0.2942)
	I턴형	76	3.24	1.640	
영농기술습득	U턴형	11	2.18	1.079	- (1.0000)
	I턴형	77	2.18	1.121	
농지확보	U턴형	11	3.36	1.286	2.163* (0.0482)
	I턴형	78	2.45	1.492	
영농조언자확보	U턴형	11	3.73	0.905	2.019* (0.0466)
	I턴형	78	2.79	1.489	

* 5% 수준에서 유의함

4.2. 귀농귀촌교육 참여 동기 및 만족도

4.2.1.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귀농·귀촌 교육¹²⁾ 참여자들의 교육참여 동기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가 37.5%로 가장 많았고, “정책자금 확보 자격을 확보하기 위하여”(36.4%), 영농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18.2%), “귀농자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8.0%) 순이었다. 한편 응답자 속성 및 유형별 귀농·귀촌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분포정도는 유의적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귀농·귀촌 교육 참여 동기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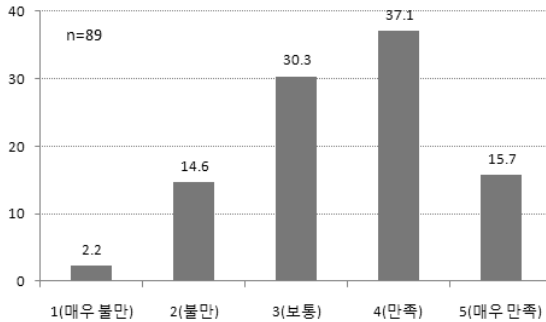
(N=88)

속성별	귀농귀촌교육 참여 동기					x ² (p)
	정책자금확보 자격 확보	영농기술 습득	인적네트워 크 형성	귀농귀촌 정보 습득		
전체	32 (36.4)	16 (18.2)	7 (8.0)	33 (37.5)		
연령	30대	7 (43.8)	2 (12.5)	1 (6.3)	6 (37.5)	13.287 (0.150)
	40대	10 (34.5)	4 (13.8)	2 (6.9)	13 (44.8)	
	50대	13 (41.9)	5 (16.1)	1 (3.2)	12 (38.7)	
	60대	2 (16.7)	5 (41.7)	3 (25.0)	2 (16.7)	
성별	남	25 (35.7)	12 (17.1)	6 (8.6)	27 (38.6)	0.511 (0.916)
	여	7 (38.9)	4 (22.2)	1 (5.6)	6 (33.3)	
학력	고졸이하	7 (38.9)	5 (27.8)	1 (5.6)	5 (27.8)	1.920 (0.589)
	대졸이상	25 (35.7)	11 (15.7)	6 (8.6)	28 (40.0)	
귀농 유형	U턴형	7 (63.6)	2 (18.2)	0 (0.0)	2 (18.2)	4.823 (0.185)
	I턴형	25 (32.5)	14 (18.2)	7 (9.1)	31 (40.3)	

12) 2011년도 3월15~5월31까지 총 22회에 걸쳐 100시간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귀농귀촌 관련 정책소개(39.0%), 농작물재배기술(54.0%), 기타 지역문화의 이해(7.0%) 등이었음. 교육방법은 이론(50.2%), 실습(5.0%), 이론+실습병행(17.9%), 사례소개(3.0%), 견학(23.9%) 등이었음.

4.2.2. 귀농·귀촌 교육 만족도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한 후 느끼는 만족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한 결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8%에 지나지 않는 반면 “만족한다” 이상은 52.8%를 보여 교육참여 대한 만족도 정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 만족수준의 분포

응답자의 속성에 따른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8>)에서는 우선 연령대별 비교에서는 50대와 60대의 만족도가 3.903점, 3.76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2.813점으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집단이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교육만족도 수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교육 참여 동기별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책자금 신청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집단에서의 교육 만족도가 3.871로 가장 높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 귀농·귀촌 정보 습득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영농기술

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자들의 교육 만족도는 2.889점으로 여타 참여동기를 보이는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8〉 응답자 속성별 만족도 차이

속성별		N	교육만족도		
			M	SD	S J
연령대	30대	16	2.813	0.750	a
	40대	29	3.310	0.761	ab
	50대	31	3.903	1.012	b
	60대	13	3.769	1.235	b
	F(p)		5.610(0.001)		
성별	남	70	3.542	0.912	
	여	19	3.315	1.293	
	T(p)		0.875(0.384)		
학력	고졸이하	18	3.940	0.998	
	대졸이상	71	3.380	0.976	
	T(p)		2.151(0.041)		
교육 참여 동기	정책자금 신청자격 확보	31	3.871	0.885	b
	영농기술 습득	18	2.889	1.132	a
	인적 네트워크 형성	7	3.714	0.756	ab
	귀농 귀촌 정보 습득	33	3.424	0.936	ab
	F(p)		4.244(0.008)		

J. 5% 유의수준에서 a>ab>b

4.2.3. 귀농·귀촌 교육 개선 요구 사항

귀농·귀촌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표 9〉). 설문에 응한 89명중 개선사항이 없다고 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6명의 응답자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 교육내용(39.5%), 교육

⑯ 재배기술교육					10	11.6					10	11.6
⑰ 교육기간 단축			10	11.6							10	11.6
⑱ 참여형식교육							1	1.2			1	1.2
⑲ 친환경교육 강화					1	1.2					1	1.2
⑳ 현장실습교육					5	5.8	14	16.3			19	22.1
㉑ 무응답					5	5.8	2	2.3			7	8.1
계	6	7.0	13	15.1	34	39.5	19	22.1	14	16.3	86	100.0

4.2.4. 귀농·귀촌 교육 운영 프로그램별 중요도 인식

귀농·귀촌 교육참여자들이 교육 운영과 관련한 내용부분에서 개선요구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응답자들이 교육운영 과목에 대해 느끼는 중요도 정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파악하여 보았고, 귀농단계별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귀농귀촌교육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과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중요도를 집계한 결과, 작물별 영농기술(4.27), 농업경영(4.13), 소비자 시장에 대한 교육(4.03) 분야가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분야, 지역문화의 이해, 세부 및 회계관리, 농촌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교육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교육 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n=89)

구 분	MAX	MIN	M	SD
① 귀농·귀촌 정보교육	2	5	3.97	0.923
② 작물별 영농기술	1	5	4.27	0.889
③ 농업경영교육	2	5	4.13	0.882
④ 시설관리 및 농기계교육	1	5	3.85	0.899
⑤ 소비지시장에 대한 교육	1	5	4.03	0.859
⑥ 지역문화의 이해	2	5	3.54	0.604
⑦ 농촌관광 및 서비스교육	1	5	3.54	1.077

다음으로 귀농귀촌 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지정도가 응답자들의 귀농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업경영 및 소비지 시장 분야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차이가 없는 반면, 귀농·귀촌 정보, 작물별 영농기술, 시설 및 농기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농촌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요도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귀촌정보와 농촌관광 및 서비스 분야는 결심과 탐색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반면, 작물별 영농기술, 시설관리 및 농기계 이용, 지역문화의 이해에 대해서는 준비나 시행단계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표 11〉 교육 프로그램별 필요도 평가

교육프로그램	귀농단계	필요도 인식 수준				S ^J
		N	M	SD	F(p)	
귀농·귀촌 정보교육	결심단계	13	4.31	0.855	3.981 (0.011)	b
	탐색단계	30	4.20	0.925		b
	준비단계	25	3.96	1.060		ab
	시행단계	21	3.43	0.507		a
작물별 영농기술	결심단계	13	3.62	0.650	4.549 (0.005)	a
	탐색단계	30	4.17	0.986		ab
	준비단계	25	4.40	0.957		b
	시행단계	21	4.67	0.483		b
농업경영교육	결심단계	13	4.15	0.801	0.454 (0.715)	
	탐색단계	30	4.00	0.910		
	준비단계	25	4.28	1.021		
	시행단계	21	4.14	0.727		
시설관리 및 농기계교육	결심단계	13	3.23	0.599	11.739 (0.000)	a
	탐색단계	30	3.43	0.817		a
	준비단계	25	4.16	0.850		b
	시행단계	21	4.48	0.680		b
소비지 시장에 대한 교육	결심단계	13	4.15	0.801	0.111 (0.953)	
	탐색단계	30	4.00	0.830		
	준비단계	25	4.00	1.041		
	시행단계	21	4.05	0.740		
지역문화의 이해	결심단계	13	3.31	0.480	4.434 (0.006)	a
	탐색단계	30	3.33	0.606		a
	준비단계	25	3.64	0.638		ab
	시행단계	21	3.86	0.478		b
농촌관광 및 서비스 교육	결심단계	13	4.23	0.832	8.689 (0.000)	b
	탐색단계	30	4.00	0.743		b
	준비단계	25	3.08	1.441		a
	시행단계	21	3.00	0.447		a

J. 5% 유의수준에서 a<ab<b

5. 요약 및 결론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이 증가함과 함께 그 동기도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 추진도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의 귀농귀촌교육과정에 참여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만족도, 교육 운영 과목에 필요성 인지 정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귀농·귀촌 교육 참가자들의 특성 분포는 남성과 50대가 많았고, 동반 가족 수는 평균 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상, 귀농 전 직업은 경영/전문직이 많았다. 귀농귀촌 유형은 I턴 형의 비중이 높아 농촌보다는 도시출신의 유입이 많았다. 귀농·취촌 동기로는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을 위하여”가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귀농단계는 “탐색단계”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귀농·귀촌에 따른 연평균 소득 만족수준은 4,074만원이었고, 4~50대와 동반 가족 수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귀농귀촌 후 영농활동과 관련한 품목선택에서는 “노지작물”의 비율이 높았고, “소득확보”차원에서 59.6%의 응답자가 농외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귀농·귀촌 준비정도는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기술 습득은 준비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야별 응답자 속성에 따른 준비정도는 자녀교육 분야에서 30대, 농지와 영농조언자 확보 분야에서 I턴 형이 준비 정도가 낮았다.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동기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의 습득”과 “정책자금 수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30대와 대졸 이상, 영농기술을 습

특하기 위해 교육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39.5%), 교육방법(22.1%), 교육시간(15.1%)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프로그램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작물별 영농기술, 농업경영, 판매 및 마케팅, 소비시장에 대한 교육, 농업정보화와 전자상거래 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정책, 지역문화의 이해, 회계관리, 농촌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귀농단계별로는 초기단계인 결심과 탐색단계에 있는 응답자들이 귀농귀촌정보와 농촌관광 및 서비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작물별 영농기술, 시설관리 및 농기계 이용, 지역문화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준비나 시행단계의 응답자들이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귀농·귀촌 교육 결과 만족도가 참여자들의 속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속성과 요구가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귀농·귀촌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의 인력부족이라는 제약 때문에 교육과정이 단계별 또는 희망분야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농귀촌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교육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을 공통과 분야별 전문 과정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전문과정에 대해서는 관심 분야에 따라 수강하도록 개선한다면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보다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면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사 대상을 제주지역과 아직 귀농·귀촌하지 않은 희망자들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극히 제한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제주지역 외 및 이미 귀농·귀촌한 자들까지 확대한다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 강대구. (2006). 귀농자의 귀농유형별 영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2), 23-53.
- 강대구. (2007).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59-98.
- 구본석. (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 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533-556.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 박공주, 윤순덕, & 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63-76.
- 박공주, 김양희, & 박정윤. (2007). 은퇴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9-21.
- 서규선, & 변재면. (2000). U턴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 이정화. (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 이주의사결정 결정요인. *한국노년학회*, 25(3), 139-153.
- 이민수, & 박덕병. (2011). 도시민 농촌이주에 대한 주요쟁점과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8(1), 1-33.
- 이상호. (2008). 경북지역 귀농인의 지역 및 지역주민과의 만족도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5(3), 551-565.
- 정철영. (2000). IMF에 따른 귀농희망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25.
- 정한모. (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논문투고일: 2011. 10. 10

1차수정일: 2011. 11. 23

2차수정일: 2011. 12. 1

게재확정일: 2011. 12. 6